



## 출근저지투쟁을 멈추며...

23년만의연합뉴스총파업이 3주를넘어섰다. 이제우리는하루하루새역사를쓰고있다. 노조는 4일부터사측과협상을시작했다. 박정찬 사장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사측에서 협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협상을 시작한 만큼 출근저지 투쟁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화 상대로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는 또 조건 없는 사퇴라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양보해 박 사장의 투표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박 사장은 당초 제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협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양보만 요구하지 말라. 이는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명분 쌓기와 시간 끌기가 아님을 바라며, 만일 이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한다. 회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이다. 조속한 사태 해결은 사원 대다수가 납득하는 결과가

나올 때만 가능하다. 상황을 정리하고 3개월 뒤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장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제도개선 기간 보장을 전제로 거취부터 결정하자는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노조는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러나 대오를 다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며 여기지 말라. 잠시 멈춘 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날,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 하종강 “노동운동은 사회 발전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

#### 조합원 대상 ‘파업 바로 이해하기’ 강의

“여러분의 파업은 개인의 삶을 운택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보람있는 일입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이 4일 오후 2시 회사 8층에서 연합뉴스 조합원에게 ‘파업 바로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연합뉴스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러분이 대학 1학년 때 들었을 얘기”라고 말머리를 댄 그는 “사회문제를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노사 관계 구조를 개선해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이라고 정의했다.

하 원장은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참으로 척박한 수준”이라며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을 주며 말했다.

군사정권시절 수배전단에 ‘미남형’이라는 묘사됐다고 한 하 원장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강의를 쉽고 담백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30여년간 노동운동을 하며 거쳤던 많은 투쟁의 현장과 만났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땐 울먹이는 듯 자주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식민지와 분단, 군사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극우·보수적 정치성향을 과도하게 강화했고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왜곡된 시각을 균형잡힌 교육으로 바로잡아

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선 ‘노동’이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1년에 6차례 ‘단체교섭실습’을 실시해 실제 노사 교섭을 경험하게 하고, 프랑스 고교 사회 교과서에는 ‘일터에서의 투쟁과 협상’이라는 주제를 한 단원을 털어 가르치고 있다”며 서유럽 교육 사례를 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동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생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다수 서유럽 국가에서 파업권은 기본적인 사회권이며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2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연합뉴스 조합원들에게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면서 “연합뉴스 노조원들도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의식과 사회의식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열심히 노조 깃발 아래서 투쟁해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되길 바란다”며 “승리하십시오”라는 응원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 연합뉴스 구석구석 - 북한부 모니터팀

북한부 모니터팀은 연합뉴스가 사랑하는 북한부의 숨은 조력자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북한부 모니터팀은 북한의 언론매체,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살살이 살펴보고 기삿거리를 찾아내 북한부로 넘긴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팀은 2인1조 3교대로 돌아간다. 주간조 2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야근조 2명은 번갈아가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한다.

모니터팀은 편집국 숙직자 자리 옆 유리방에서 북한 동향을 지켜보느라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대로 나가서 식사하거나 집에서 싸온 음식을 먹는다. 야간조는 오전 3~4시 사이에만 잠시 쉴 수 있다.

모니터팀의 주요 업무는 조선중앙TV 모니터링이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면서 컴퓨터로 실시간 녹화를 하고 특이한 영상이나 인물을 발견하면 녹화된 영상을 캡처해 사진으로 발행한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테이프에 녹음하고 뉴스, 날씨, 단신 등은 직접 타자해서 모니터팀 작성장에 올린다.

아울러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내나라 등 10여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살펴보고 기삿거

리를 골라내고, 번역기를 이용해 북한 여행 전문가, 북중관계전문가, 중국정부 등 사이트까지 살핀다.

10여년 경력의 전문가답게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바로바로 잡아낸다. 기존에 북한이 쓰지 않던 표현이나 새로운 인물, 특이한 사진 등을 잡아내는 눈썰미는 노력만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이 잡아내는 기사 아이템 대부분은 그 날의 북한뉴스가 된다.

북한부 모니터팀은 통일부, 군 정보사령부, 국정원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유일하게 북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모니터하는 곳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부 모니터팀이 북한의 공식발표가 없었는데도 김정일의 사망을 미리 감지해 연합뉴스가 가장 빨리 보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모니터팀원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1명을 제외한 5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파업투쟁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비록 기자직은 아니지만 공정보도라는 기치는 연합뉴스가 존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했다”며 “자녀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고 맞벌이도 없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배들이 일어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파업 참여 이유를 전했다.

모니터팀 조합원들은 모두 연봉사원인데 10년째 같

은 임금을 받고 있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회사에 전문직 대우를 해 달라고 해도 ‘당신들은 기자가 아니잖나’, ‘당신들이 기사를 하고 싶으면 공채 기수로 들어와라’ 등의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이제 13년차가 됐는데 승진도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회사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십여년간 이야기 해도 바뀐 게 없었다”며 “평소 회사의 연공서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모니터팀 조합원들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고 싶어서 파업에 참여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 십여년간 근무하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거나 인사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파업 집회에 참여하면서 최근엔 조합원들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도 생겨 기쁘고 소속감도 느꼈다고 한다.

또 다른 모니터팀 조합원은 “연합뉴스가 살아야 우리도 살고 회사를 떼뺏하게 다닐 수 있을 거 같다”며 “후배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참 정의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